

자신보다 팀이 중요했던 ‘투혼의 에이스’

‘V12’ KIA타이거즈 2024년 결산 <6> 투수 제임스 네일

“KIA타이거즈의 열두 번째 우승에 보탬이 되고 싶다. 빠르게 회복해 전력에 복귀하겠다.”

제임스 네일은 약속을 지킬 줄 아는 남자였다. 올해 정규시즌 막바지 턱관절 골절로 전력에서 이탈했지만 오직 KIA타이거즈의 통합 우승만을 바라보며 괴물 같은 회복력을 보였다.

올 시즌을 앞두고 KIA 유니폼을 입은 네일은 외인 선발진의 2옵션으로 꼽혔다. 먼저 영입된 월 크로우가 두터운 메이저리거 커리어에 풀타임 선발 경험까지 있어 뒤를 받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네일이 1옵션으로 떠올랐다.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존재감을 발휘하더니 실전에서도 강력한 스위퍼에 직구와 커터까지 다양한 구종을 활용하며 타자들을 요리했다. 이 사이 크로우가 팔꿈치 부상으로 이탈하며 네일은 확고한 1선발이 됐다.

네일은 정규시즌 동안 KBO 리그를 지배했다. 정규시즌 막바지 타구에 얼굴을 맞아 턱관절 골절을 당하며 전력에서 이탈했음에도 26경기에서 12승 5패, 평균자책점 2.53을 기록하며 올 시즌 가장 낮은 방어율을 기록한 주인공이 됐다. 뿐만 아니라 다승에서 공동 7위, 승률에서는 0.706으로 6위의 호성적을 냈다.

네일이 15승으로 다승 공동 1위를 차지

정규시즌 평균자책점 1위 등극
다승 및 승률서도 상위권 기록
안면 부상에도 KS 맞춰서 복귀
“빠른 복귀, 우승에 도움 될 것”

한 원태인(삼성라이온즈), 궤빈(두산베어스)과 3승 차이밖에 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남은 시즌에 정상적으로 출전했을 경우 평균자책점 외에도 타이틀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불의의 부상으로 인해 다관왕을 놓쳤음에도 네일은 낙담하지 않고 팀 우승에 대한 열정을 꺾지 않았다. 수술대에 오른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병상을 박차고 일어났고, 퇴원 직후 어깨와 팔꿈치 등 간단한 운동을 시작했다. 선수단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시점은 부상으로부터 딱 열흘 뒤였다.

당시 네일은 “근육과 체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의 체격을 유지해야 한다”며 “집에서만 지내는 것이 지루하다. 경기장에서 동료들과 팬들을 만나며 에너지를 얻고, 빠른 회복으로 한국시리즈 전까지 전력에 복귀해 팀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통상적으로 외국인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모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전념한다. 지난해 LG트윈스의 아담 플러코와 올해 삼성라이온즈의 코너 시볼드가 부상으로 한국시리즈 엔트리 합류가 불발된 바 있다.

특히 네일의 경우 이미 옵션을 모두 충족한 상황이었다. 당초 KIA와 사인한 70만달러(이적료 제외)의 연봉을 100%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한국에 남아 팀을 우선시했다. 실전 등판을 위한 단계별 투구 프로그램 역시 빠르게 진행됐다.

결국 네일은 한국시리즈 1선발로 낙점됐다. 연습경기에서 최고 구속이 150km를 웃도는 등 구위와 제구 모두 합격점을 받았고 이범호 감독도 키플레이어로 지목하며 굳건한 믿음을 보였다.

네일은 이 믿음에 완벽히 보답했다.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5이닝 1실점으로 짤물 투구를 펼쳤고, KIA는 6회초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되는 우여곡절 끝에 승부를 뒤집으며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이어 2승 1패로 근소한 우위에서 나선 한국시리즈 4차전에서도 5.2이닝 2실점으로 호투를 펼치며 승리 투수가 됐다. 이날 네일이 챙긴 탈삼진만 무려 일곱 개에 달했다.

네일은 통합 우승을 확정 지은 뒤에야 집을 쟁겨 모국인 미국으로 떠났다. KBO 리그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만큼 메이저리거의 관심도 뜨거운 상황이다. 하지만 KIA는 무조건 잡겠다는 기조로 재계약 협상에 최선을 다할 전망이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KIA타이거즈 제임스 네일이 지난날 2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호투를 펼친 뒤 미소를 지으며 마운드를 내려오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백승환 교토국제고 교장(오른쪽)이 지난날 10일 학교를 방문한 강진수 최동원기념사업회 사무총장으로부터 최동원상 기록물을 전달받고 있다.

최동원기념사업회 제공

‘KIA와 인연’ 교토국제고, 불굴의 영웅상 수상

11일 최동원상 시상식 개최
지난 겨울 연습구 1000개 전달

열악한 여건에서도 전국고등학교야구 선수권대회(고시엔)를 제패하며 일본 전역에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지게 한 교토국제고가 ‘무쇠팔’ 고(故) 최동원을 기리는 불굴의 영웅상을 수상했다.

최동원기념사업회는 11일 오후 BNK 부산은행 본점 오션홀에서 ‘제11회 BNK 부산은행 최동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교토국제고가 최동원 정신을 가장 잘 실현한 단체에 주어지는 불굴의 영웅상의 주인공이 됐으며 백용규 세계한인무역협회 부회장이 대리 수상에 나섰다.

최동원기념사업회는 “교토국제고 야구부가 아닌 교토국제고를 불굴의 영웅상에 선정했다”며 “선수단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 재일교포 커뮤니티, 지역 사회 등의 전폭적인 지원과 헌신이

있었기에 고시엔 우승이 가능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토국제고 야구부는 2021년 고시엔에서 첫 출전임에도 준결승에 진출하는 이변을 일으켰고, 올해 대회에서는 결승에서 간토다이이치고와 연장 10회 승부처기 끝에 정상에 올랐다.

교토국제고 야구부가 고시엔 정상에 오르며 KIA타이거즈와의 인연도 화제가 됐다. 심재학 KIA 단장은 지난 2월 퓨처스 스프링 캠프를 방문하기 위해 일본 고치로 가는 과정에서 오사카에 들렀다 한 재일동포로부터 교토국제고 야구부의 어려운 훈련 환경에 대해 접했다.

후원이 넉넉지 않아 선수단이 찢어진 공에 테이프를 붙여서 쓴다는 이야기를 들은 심 단장은 퓨처스 스프링 캠프가 끝난 뒤 연습구 1000개를 교토국제고 야구부에 전달했고 사진과 감사 편지, 고시엔 초청장을 받기도 했다.

한규빈 기자

‘불펜 최대어’ 장현식, LG 유니폼 입었다

4년 총액 52억원에 ‘무옵션 계약’
KIA 1.6억+보상 선수 선택 전망

올해 자유 계약(F.A) 시장에서 ‘불펜 최대어’로 꼽혔던 장현식(사진)이 새 동지를 틀었다. LG트윈스가 무옵션 계약으로 장현식 영입전의 승자가 되면서 KIA타이거즈는 보상금과 보상 선수를 받게 됐다.

LG는 장현식과 계약금 16억원과 연봉 36억원 등 4년 총액 52억원에 FA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KBO 리그에서는 여덟 번째이자 LG 구단의 첫 FA 계약이다.

2020시즌 도중 NC다이노스에서 2:2 트레이드로 내야수 김태진과 함께 KIA 유니폼을 입은 장현식은 필승조로 자리매김하며 맹활약을 이어왔다. 당시 KIA에서는 투수 문경찬과 박정수를 보냈다.

장현식은 2021시즌 69경기에 출전해 34홀드를 챙기며 KBO 리그 홀드왕을 차지했다. 올해 정규시즌에는 팀 내 최다인



75경기에서 5승 4패 16홀드와 평균자책점 3.94를 기록했고 한국시리즈에서도 다섯 경기에 모두 나서 무실점으로 1홀드를 챙기는 등 통합 우승에 기여했다.

장현식은 LG 구단을 통해 “좋은 기회를 주신 LG에 감사하다. 그동안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KIA와 NC 팬들에게도 감사하다”며 “LG의 좋은 선배 선수

들과 최고의 성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KIA는 FA 시장에서 B등급으로 책정된 장현식이 LG로 떠나면서 전년도 연봉의 100%인 1억6000만원과 보호 선수 25명 외의 보상 선수 1명 또는 전년도 연봉의 200%인 3억2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다.

KIA가 현금을 선택할 가능성은 현재지 낮다. LG의 선수층이 두터운 만큼 보호 선수 명단에서 유망주들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KIA는 지난해 FA 시장에서도 포수 박동원의 보상 선수로 투수 김대유를 영입하며 쓸쓸하게 활용한 바 있다.

‘J-J-J 트리오’로 대표됐던 장현식과 전상현, 정해영의 필승조가 해체된 만큼 KIA에게는 계투진 개편도 과제다. 올 시즌 불펜에서 활약한 곽도규와 이준영, 최지민이 이 빈자리를 메울 수 있고 선발과 불펜을 오간 김도현과 김기훈도 후보군이 될 수 있다.

한규빈 기자

광주다움스포츠클럽 수영선수, 전원 입상 쾌거

전국스포츠클럽교류전

광주다움스포츠클럽 수영 선수들이 제2회 전국스포츠클럽교류전에서 출전 선수 전원 입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10일 광주다움스포츠클럽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북 문경시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 수영 종목에 클럽 소속 10명의 초

등학생이 출전해 금메달 11개와 은메달 2개 등 총 1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김승주(빛누리초 4)가 남자유년부 자유형 50m·배영 50m·남자초등부 계영 200m에서 1위를 차지해 3관왕에 올랐다.

권규민(라온초 6)도 초등부 남자 자유형 100m·평영 50m, 계영 200m에서 3개

의 금빛 물살을 갈랐다.

여자초등부 자유형 100m·평영 50m에 출전한 박소윤(빛가람초 6)과 여자초등부 자유형 50m·평영 50m에 나선 김연주(풍양초 4)는 각각 2관왕을 차지했다.

박지윤(빛가람초 4)은 여자유년부 접영 50m 금메달과 자유형 50m 은메달을 각각 목에 걸었다. 서치엔신(일신초 6)도 남자초등부 접영 50m 금메달과 자유형 100m 은메달을 각각 거머쥐었다.

최동환 기자